

개교 77주년 맞은 전북대

발전기금 77억원 '목표'

대학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여건 개선 등 모색
양오봉 총장, 내부 대표로
발전기금 1000만원
윤신근 박사동물병원장
외부 대표로 4000만 기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올해 개교 77주년 회수(喜壽)를 맞아 77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방위 노력을 시작했다.

전북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양오봉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 최병선 총동창회장, 직원협의회장 등 대학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7억원 모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전북대는 이날 선포식을 통해 전 구성원과 20만 동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인 발전기금 모금 체계로 전환해 꼭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시작으로 대학 내부 대표로 양오봉 총장이 1,000만원을 기부했고,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발전기금을



전북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양오봉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 최병선 총동창회장, 직원협의회장 등 대학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7억원 모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

기부해 온 윤신근 윤신근박사동물병원장(수의학과 72학번)이 이날 4,000만원을 기부해 지금까지 총 10억 원 기부를 완성했다. 윤신근 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1억원을 추가로 기부해 77억원 모금 선포에 더 큰 힘을 보탤다.

전북대는 올해 77억원의 발전기금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기금 모금 전담부서인 발전지원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 '기금모금팀'을 신설, 기존보다 내실 있는 모금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JENU 아너스 클럽을 구성해 재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

간 다소 저조했던 단과대학별 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JENU 기부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과대학이나 학과, 개인별로 발전기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성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10월 전북특별자치도 주최로 전북대에서 개최되는 세계한국경제인 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발전기금 모금으로 연계시키자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전북대병원과 연계한 건강검진과 피부미용, 치과 진료 등의 의뢰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는 전북대 모습을 세계 경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해 전북대의 우수한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고, 이를 발전기금 확충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옛 조선왕실과 도민들의 기부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우리 전북대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탄한 발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개교 77주년이 되는 올해를 전북대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번엔 시작하는 77억 모금 선포식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형 독서토론교육 기틀 마련

전북자치도교육청, 토론교육 이론·실제 위한 가이드북 발간
독서토론 운영학교 50개교·독서토론 동아리 106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 토론교육'의 이론과 실적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독서토론대회 운영학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토론교육 가이드북에는 독서토론의 교육 효과, 교육 목표, 이론적 배경과 △독서토론의 개요 △독서토론 교육 △독서토론 실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담아 전북형 독서토론 교육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수업·학교·교육청 수준에서 토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북 독서토론 모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 독서토론은 책을 읽고 주장을 관철할 근거를 모아 사고력, 특히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현장에서 제시하는 상황맥락을 고려해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경쟁식 토론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의사소통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전북 독서토론 모형도 제시하고 있다. 3인 1팀의 토론 방식으로 사고력 확장, 배려적 태도,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교차조사, 상호토론, 속의 과정, 참여자의 역할을 규정할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북의 자료개발 위원으로 참여한 박영민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전북 독서토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반대



신문식토론을 기반으로 전북 독서토론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토론모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토론교육 가이드북 개발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독서토론교육을 위해 지난 2일 담양교사 워크숍도 진행했다. 워크숍은 독서토론 가이드북 활용과 전북독서토론교육 모형에 따른 실습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독서토론대회 운영학교 50개교와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독서토론동아리 106팀을 선정,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학생들이 토론교육을 통해 비판적 및 창조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능력을 키워 미래 사회를 이끄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독서토론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평선고 학교협동조합 '더함' 문 열다... 도내 8번째

학생 실물경제활동 참여
교육자치의 장으로 활용

전북에서 8번째 학교협동조합이 개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5일 김제지평선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 '더함' 개소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학교협동조합은 공동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김제지평선고는 비즈쿨,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기반을 닦았고, 지난해 학교협동조합 설립 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이후 학교 구성원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설립 절차를 거쳐 이번엔 개소식을 열게 됐다.

'더함'은 학교 구성원의 생활권의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물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자치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협동조합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인 학생 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김제지평선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 '더함' 개소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육·복지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학생이사로 참여한 3학년 문서진 학생은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적으로 소통해 '더함'이 직접적인 경제교육, 수익의 복지사업 환원, 학교 현장과의 상생,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

로 조합을 설립하신 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더함'이 공동체적 삶의 가치 습득, 사회적경제의 이해, 민주시민 의식 성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교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11월 전라중학교 '생그레'를 시작으로 지평선고 '더함'까지 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유정기 전 교육부 협력관

전북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유정기(56) 전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이 임명됐다.

전북 원주 출신으로 영성고등학교 교과 사물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유정기 신임 부교육감은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8년 전북대 교무과장, 2015년 교육부 지역대학육성사업, 2019년 공주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 부교육감은 8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기전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2년 연속 전주시와 '맞손'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공모한 2024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내 다른 3개 대학과 함께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주기전대학은 농생명 힐빙(Heal-Being) 분야의 강점을 살려 '허브 식물 정원 조성 및 재배·가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를 중심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전대는 2023년에 본 사업에 참여해 '도시농업 기반 산야초 재배·가공 전문가 양성'과 '취·창업자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강인주 평생교육원장은 "농생명 힐빙(Heal-Being) 분야의 강점을 살려 전주기전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해 개발하고, 지역 대학과도 연계해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수련원이 고창북고를 시작으로 2024년 수련교육을 시작했다. 사진은 국궁 체험과 숲 체험.

'실력·바른 인성 함양'

학생수련원, 고창북고 시작 '수련교육'
마음·신체의 균형·조화 추구에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강양원, 이하 학생수련원)은 고창북고를 시작으로 2024년 수련교육을 시작했다.

올해는 집외이어, 집트랙, 모험활동, 국궁, 플라잉 등 신체활동에 더해 마음수련 과정을 운영한다.

그 내용은 자아 정체감과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명상 요가, 밸런스워킹 PT', 긍정의 힘을 기르는 '경제와 삶의 지혜, 동양사상과 삶의 지혜', 전통 예절과 효를 실천하는 '예절 실습과 다례',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집단 상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기르는 '국악

(무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고창북고 1학년 김유민 학생은 "이번 실습으로 예절과 효의 의미를 배우고, 멀고 어렵게만 느꼈던 효가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생수련원 강양원 원장은 "올해부터 수련교육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변화의 핵심은 마음과 신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서 "앞으로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마음수련 과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안내

전북자치도교육청, 9일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교장 임용 기회를 부여하고, 교장 임용 방식을 다변화해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전북에서는 올 3월 1일 기준으로는 초빙형 40개교, 내부형 21개교, 개방형 57개교 등 총 66개교가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1일자 교장공모 대상 학교는 초등 33개교, 중등 18개교다. 대상 학교 중 교장결원학교(정년퇴직, 중임 만료)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교장결원(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이 발생해 학교장의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모 유형, 심사방법, 응시자격 등을 결정할 후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자격기준, 대상학교 등 2024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행 관련 설명회를 오는 9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현장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공유전공 활성화

국립군산대, 中 탄산해운직업대학과 MOA 등 체결
새만금캠퍼스 내 中 보신그룹 한국교육센터 현판식

국립군산대학교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현장실습과 학업을 병행하는 '현장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공유전공' 프로그램이 본격화된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최근 새만금캠퍼스에서 중국 탄산해운직업대학과 MOA 및 차오페이디엔직업기술대학과 MOU를 체결했다. 또한 새만금캠퍼스 내 중국 보신그룹 한국교육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의 인재 교류

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산업인재를 전북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 보신그룹과 국립군산대학교의 업무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 캠퍼스에 중국 보신그룹 한국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 공유전공 학생을 국립군산대에 보내 학생교류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보신그룹, 탄산해운직업대학

과 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공유전공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3학년으로 편입한 유학생들이 절반은 산업 현장에서 실습하고, 절반은 학교에서 수강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2+2 형식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학생 수를 사전에 파악해 기업별 채용연계형 공유전공을 개설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1년 4개월 만에 2년 과정을 이수하며, 대학은 졸업 후 해당 기업 채용을 지원하게 된다. /문산=김광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